농림축산식품부 | 보도 설명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9.(월) 배포 시 배포 2026. 11. 9.(월)

최근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방역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1월 계란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일일 5,059만 개 전망

〈 주요 보도내용 〉

11월 9일(월) 서울신문 「'겨울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 달걀값, 일주일 만에 7% 뛰어」 기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소비자 가격이 일주일 만에 7% 상승하였으며, 향후 AI 확산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계란 생산 및 공급 여건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된 상황입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산란계 사육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계란 공급 여건도 개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산란계사육마릿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급 기반이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5,163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11월에도 약 5,059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1월 사육 마릿수: (평년) 7,654만마리, ('25) 8,073 → ('26p) 8,401 (평년비 9.8%↑, 전년비 4.1%↑)
▸ 11월 6개월령 이상 : (평년) 5,553만마리, ('25) 5,801 → ('26p) 5,918 (평년비 6.6%↑, 전년비 2.0%↑)
▸ 11월 일일 생산량: (평년) 4,746만개, ('25) 4,947 → **('26p) 5,059 (평년비 6.6%↑, 전년비 2.3↑%)**

이에 따라 계란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산지가격 하락은 유통단계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지가: (10.상) 5,856 → (10.중) 5,503 → (10.하) 5,163 → (11.상p) 5,057 (평년比 0.8%↑, 전년比 8.0%↓)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처분 수량은 약 43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이며, 아직 발생 초기 단계로 향후 확산 규모와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산란계 사육마릿수, 계란 생산량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과 계절적 요인, 유통 여건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가격만으로 향후 수급 및 가격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문원탁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23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